

‘천정부지’ 농수산물 가격... 물가잡기 ‘사활’

배추 등 5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5월 관세 인하분 공급 신속 추진 대과 등 25개 품목 납품단가 지원 “생활 밀접 분야 시장 감시 강화”



배추, 양배추값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며 채소값 잡기에 나섰다. 사진은 광주 한 대형마트 채소코너의 모습.

배추, 김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정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 높은 가격대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에 나선다. 일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물가도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

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지역 배추, 양배추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각 2만2000원, 2만13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김 가격은 1만원으로 전년 같은 날(6627원)보다 50.9% 올랐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총 5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대과,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출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kg당 배추 750원, 양배추 750원, 대과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이다.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 조미김 등 총 2종을 더해 할당관세를 적용, 업계의 원가 부담 완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고물가에도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라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락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택시운전사 영화 속 ‘브리사’ 택시를 재현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이벤트 굿즈.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 ‘택시운전사X앞새주’ 현장 이벤트

27일 광주FC 홈구장 포토존 운영 ‘브리사’ 택시 피규어 굿즈 등 제공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오는 27일 광주FC 홈구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축구전용구장 GATE2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로 꾸며진 포토존이 운영된다. 포토존에서 영화 속 인물의 모습을 재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스 입장 시 진행되는 포토존 키 추첨 또는 하프타임 이벤트에 당첨된 관객에게는 ‘브리사’ 피규어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에서는 선수 사인이 담긴 브리사 굿즈를 증정한다.

영화의 택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굿즈는 ‘택시운전사X앞새주’ 한정판 모델이다. 프라모델 제작업체 ‘아카데미과학’의 문방구 시리즈 중 기존 붉은색 브리사 피규어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택시 버전으로 특별 제작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5월 중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여러 제품과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지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영화 ‘택시운전사’ 이미지를 라벨에 적용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을 4~5월 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한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광주전남본부, 쏘나타 택시 1호차 전달

현대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국제교통에서 ‘현대자동차 쏘나타 전용택시’ 1호차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국내 내연기관 중형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인 ‘쏘나타 택시’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법인택시 업체인 국제교통이 100% 현대차 택시를 보유하며, 오랜기간 현대자동차와 동행한 점을 고려해 광주지역 ‘쏘나타 택시’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쏘나타 택시’는 모델 특성상 가혹한 시내주행환경에서도 택시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스마트스트림 엔진 LPG 2.0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또한 쏘나타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넓



은 2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1열/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 에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송성호 본부장은 “이번 쏘나타 택시 1호차 특별 전달식 진행을 계기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태국서 AI TV 핵심 기술력 선보

‘2024 동남아시아 테크 세미나’

삼성전자가 2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태국 방콕에서 테크세미나를 개최,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OLED 등 AI TV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영상·음향 분야 미디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V 신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테크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테크 세미나는 △화질 업스케일링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 화면 설정 △삼성 OLED의 ‘글레어 프리(Glare Free)’ 기술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 등 2024년 신제품과 함께 AI TV를 여는 핵심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2024년형 Neo QLED 8K는 ‘NQ8 AI 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년 대비 8배 많은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저해상도 영상을 8K급으로 업스케일링 해준다.

2024년형 삼성 OLED는 미국 안전 인



삼성전자가 2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태국 방콕에서 테크세미나를 개최,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OLED 등 AI TV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제공

증기관인 ‘UL’의 인증을 받은 ‘OLED 글레어 프리(OLED Glare Free)’ 기술을 적용해 스크린의 빛 반사를 줄여 선명한 화질로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품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탈부착이 가능한 포토

프레임에 원하는 사진을 끼워 넣어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테크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중남미 등 타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테크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